

MAKE UP 도구 TREND



By 박선영 교수

CHAPTER 2

메이크업 도구

당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들

브러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메이크업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화장만 하는 일반 여성까지도 상황에 딱 맞는 도구를 활용했을 때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블러셔, 아이섀도, 눈썹, 아이라이너용 브러시는 꼭 갖춰야 할 필수 브러시다. 물론 좋은 품질의 것으로, 실제로 좋은 브러시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뷰티 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브러시는 물론이고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만든 전문적인 브러시를 봐도 그렇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브러시인지, 어떤 것이 좋은 브러시인지 알려면 다양한 종류와 모양, 브러시 모의 타입까지도 두루두루 써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브러시, 어떻게 판단할까?

브러시를 구입하기 전, 당신에게 필요한 브러시 종류와 어떤 브러시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좋은 브러시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피부에 닿는 털의 감촉을 테스트하고 털 사이에 손을 넣어 쉽게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브러시를 손으로 쥐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촉감이 좋고 손놀림이 쉬운 것이 좋은 브러시다.

Bobbi's Tips 브러시에 관한 궁금증

브러시 사이즈, 영향이 있을까?

대부분의 메이크업 콤팩트에 들어 있는 브러시는 활용할 때 작고 좁아서 불편할 수 있다. 평소에는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된 브러시를 사용할 것.

천연 모가 좋은 이유

천연 모(다람쥐, 염소, 말, 또는 여우)는 부드러운 게 장점이다. 컬러를 블렌드하는데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에 적당하다. 그러니 블러셔나 파우더, 아이섀도 같은 파우더 타입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천연 모를 선택하도록.

합성 모는 어떤 제품에 잘 맞을까?

천연 모가 좋고, 합성 모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합성 모는 크리미한 제품에 잘 맞는다. 예를 들면 컨실러나 젤 라이너 그리고 립 컬러 같은 촉촉한 크림을 바를 때 효과적이다. 합성 모는 천연 소재에 비해 뽀뽀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알아두면 좋은 도구 활용법

컬러cheme 맞춰 브러시의 용어를 정리한 미니 사진을 소개한다. 당신이 파우치 안에 갖고 다녀야 할 도구뿐 아니라 다양한 타입의 브러시에 대한 정보도 있다. 테크닉과 상황에 따라 어떤 브러시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볼러지 브러시 Blush Brush

볼러지에 볼러지를 바를 때 사용하는 브러시로 뺨을 덮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털은 부드러운 천연 모가 좋으며, 경사가 있는 스틱 형태여야 한다.



브론저 브러시 Bronzer Brush

볼러지 브러시보다는 두껍고 평성한 형태로 옆에서 보면 편평하다. 피부에 자연스러운 혈색을 더하기 위해 뺨이나 이마, 코 그리고 고목 부분에 바른 브론저 제품을 쓸어내리는 동시에 살짝 눌러 묻혀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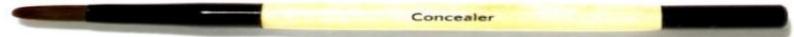
브로 브러시 Brow Brush

눈썹 모양을 대거나 진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브러시로 털이 짧고 빽빽하며, 털의 가장자리 부분이 각진 형태다. 합성과 천연 모가 혼합된 털이 좋다. 100% 합성 털은 너무 뻣뻣하며 컬러를 도파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브로 그로밍 브러시 Brow Grooming Brush

빽빽한 털이 일과 형태로 커팅되어 언뜻 보면 칫솔처럼 생긴 이 브러시는 눈썹을 정돈할 때 사용한다.



컨실러 브러시 Concealer Brush

다크 서클이 있는 눈 밑은 예민한 부위라서 브러시가 너무 뻣뻣하거나 까끌까끌하면 안 된다. 가장 좋은 것은 피부결을 따라 브러시로 쓸어보았을 때 탄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약간 광택이 나는 합성 모가 제격이다. 털끝은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그래야 눈 안쪽의 코너처럼 좁은 부위까지 잘 발리기 때문이다. 코 주위의 붉은기를 커버할 때는 스틱 형태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아이 블렌더 브러시 Eye Blender Brush

긴 털을 가진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천연 모 브러시는 아이섀도 컬러를 블렌딩하거나 눈꺼풀에 여러 가지 컬러를 바른 뒤 그 경계를 없앨 때 유용하다. 컨실러나 코렉터를 오랜 시간 유지하고 싶을 때 또는 눈 주위나 잡티 커버 시 파운데이션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파우더를 그 위에 덧바르기도 하는데, 이때 아이 블렌더 브러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아이 컨투어 브러시 Eye Contour Brush

대부분 납작한 천연 모로 되어 있으며, 털이 짧고 촘촘해서 눈 주위에 좀 더 많은 양의 섀도를 바를 때 유용하다. 납작하고 둥근 형태로 천연 모가 좋다.



아이 셰이더 브러시 Eye Shader Brush

털의 머리 부분이 납작하고 넓은 형태로 아이섀도를 바를 때 눈꺼풀에 남아 있는 여분의 섀도를 부드럽게 털어낼 때 유용하다.



아이섀도 브러시 Eye Shadow Brush

브러시의 넓이는 눈꺼풀의 반만 덮을 정도가 적당하다. 내추럴하고 부드러우며, 살짝 각이 진 둥근 형태를 띤다. 각이 살짝 있어야 보기 싫은 경계를 남기지 않고 아래쪽 눈꺼풀에 있는 섀도를 쓸어내릴 수 있다.



아이 스머지 브러시 Eye Smudge Brush

털끝이 살짝 둥글면서 머리 부분은 좁은 이 브러시는 스톱키 룩을 연출할 때 활용하면 좋다. 부드럽고 유연한 털이 라인을 적당히 뭉개주기 때문이다.



아이래시 콤 Eyelash Comb

마스카라가 잘 뭉치는 사람이라면, 아이래시 콤이 유용하다(간혹 플라스틱 소재도 있다). 일직선 형태의 뾰뚱하고 미세한 빗살로 되어 있어 마스카라를 바른 다음 눈썹을 분리할 때 도움이 된다. 마스카라와 함께 사용하면 잘 발리며 훨씬 편리하다.



아이래시 컬러 Eyelash Curler

눈썹 컬을 자연스럽게 만들 때 아이래시 컬러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아이래시 컬러는 메탈 소재에 고무 패드가 달린 것이 좋다. 대신 패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 아이래시 컬러로 눈썹을 집어서 컬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이 진 아이라이너 브러시 Eyeliner Brush(Angled)

아주 짧고 각이 져 있으며, 털이 뾰뚱한 게 특징이다. 섀도를 이용해 얇은 눈썹을 강조할 때나 아이라인을 그릴 때 유용하다.



편평한 아이라이너 브러시 Eyeliner Brush(Flat)

합성 모로 만들었으며 납작하면서 촘촘하다. 아이라이너 브러시는 대개 털 부분이 약간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브러시는 파우더 타입의 라이너나 크림 타입의 라이너에 묻혀 섬세한 속눈썹 라인을 그릴 때 효과적이다.



매우 얇은 아이라이너 브러시 Eyeliner Brush(Ultra Fine)

리퀴드나 젤 타입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때 제격이다. 이 작은 브러시의 털은 합성 모가 대다수이며, 촘촘하고 끝 부분이 뾰족한 편이다.



페이스 블렌더 브러시 Face Blender Brush

반짝임이 은은한 시머 파우더나 브론저, 파우더 또는 블러셔를 바를 때 사용한다. 천연 모 또는 합성 모로 되어 있다.



페이스 브러시 Face Brush

브론저나 블러셔 또는 파우더를 바를 때 사용하는 브러시로 폭신폭신하면서 곡선 형태로 되어 있다. 천연 모 또는 합성 모로 되어 있다.

아이래시 컬러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아래를 같이 주의해야 한다. 대신 패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

어 쥘다' 된것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히 눈썹을 바를 때



파운데이션 브러시 Foundation Brush

적당한 양의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바를 때 유용하다. 합성 모로 풍성하면서도 끝 부분이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립 브러시 Lip Brush

탄력 있고 털이 긴 립 브러시는 끝 부분이 아주 얇고 뾰족하다. 립 컬러를 정확하게 바를 때 유용한 도구다. 털은 합성이나 천연 모 모두 괜찮다.



파우더 브러시 Powder Brush

루스 파우더나 프레스트 파우더를 자연스럽게 바를 때 유용한 브러시다. 천연 모로 되어 있으며, 크고 폭신폭신한 형태의 브러시가 대부분이다. 털의 느낌은 매우 부드럽고 끝 부분이 살짝 뾰족하다(그래야 코 주변이나 눈 밑에도 발린다).

Bobbi's Tips 발라도 흡수가 안 된다면?

피부에 메이크업 제품을 고르게 펴 바를 때 손끝에 있는 열기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입술에 물든 듯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때도 손끝의 열이 도움을 준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웬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 보일 때, 얼굴에 베르는 크림이나 밤(Balm) 또는 오일을 양 손바닥에 올려놓고 비빈 다음 볼 부위에 지그시 눌러준다. 그러면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고 반짝이는 느낌이 살아나 어려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컨실러가 잘 발리도록 온기를 불어넣을 때나 파운데이션을 섞을 때, 립스틱 컬러를 믹스할 때도 도구 대신 손을 사용한다. 메이크업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피부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도록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할 때도 손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



파우더 퍼프 Powder Puff

파운데이션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파우더를 덧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손이나 식기세척기로 세탁하면 된다(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펀지 Sponges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스펀지는 매우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다. 각이 진 모양의 스펀지는 닿기 힘든 부분이나 코 주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경계를 지우려고 블렌딩할 때 매우 좋다. 세척이 안 되는 제품이라면 굳이 세탁하려고 애쓰지 말 것. 더러운 것은 버리고 새것을 사용하면 된다. 좋은 품질의 스펀지는 세척도 잘 되고 재활용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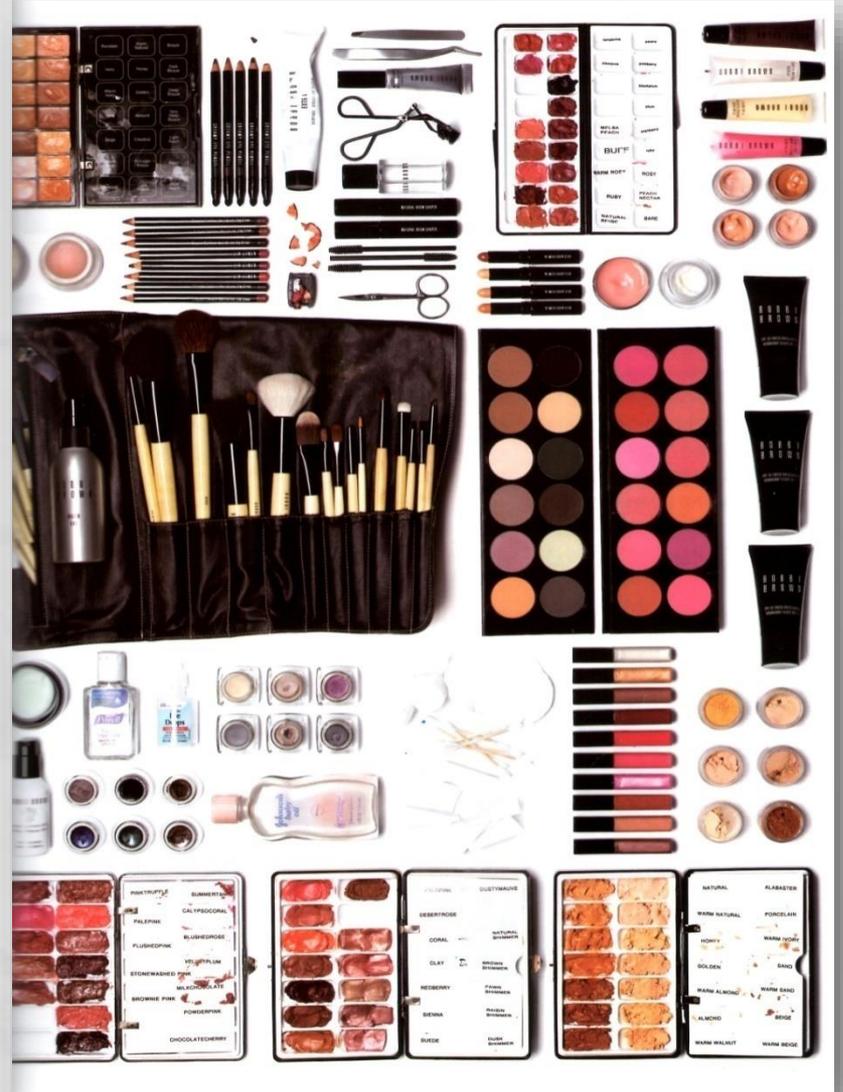
터치 업 브러시 Touch up Brush

코나 입 주위의 닿기 힘든 부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사용하는 터치 업 브러시는 짧고 견고한 천연 모로 되어 있다. 컨실러나 아이섀도를 바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트위저 Tweezers, 족집게

좋은 트위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끝 부분에 각이 진 트위저가 뾰족한 트위저보다 사용하기 편하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끝부분을 고무 캡으로 싸둔다.



페이스 차트를 응용하라

지금까지 배운 메이크업 기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페이스 차트(Face Chart)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메이크업으로 변신하고자 할 때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럼, 스타일에 따라 페이스 차트로 정리해두면 다양한 메이크업을 일목요연하게 자료화 할 수 있다



Skincare
Hydrating Eye Cream

Face
Corrector / Concealer

Cheek
Pink Raspberry Pot Rouge
Extra Soothing Balm

Lip
Pink Raspberry Pot Rouge

Eye
Navajo Eye Shadow
Fog Eye Shadow
Black Everything Mascara

Makeup Artist _____
Store _____
Telephone _____

Never give up!

“앞으로 살아갈 날중에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날입니다”

Thank You !

